"한국 경제, 껍데기만 선진국 수준"

KDI, 'OECD 10년' 보고서…대외 개방 확대 등 지속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질적개선은 부족한 만큼 제도의 질적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열린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제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가입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규모는 지난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증대됐고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5%에서 40%로 늘어났다.

KDI는 "OECD의 정책 권고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특히 금융과 재정·교육·노동 등 각 분야별로 OECD 기준의 통계를 작성,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정책형성과 성과 점검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KDI는 "그러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전 세계 1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분야는 지난 1997년 65.0%였던 자유화 지표가 2006년 85.1%로 OECD 회원국 평균(89.3%)에 근접할 만큼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갖추게 됐지만 향후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 수단의 확보,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기업분야의 경우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OECD 가입 당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하고 OECD 모델 조약내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조세제도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운영지침의 명확화, 조세 회피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은 아직 제도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법령 제·개정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관련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KDI는 "향후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개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수완신도시에 지역난방시설 기공

광주 수완신도시 집단청정에너지 시설 기공식이 18일 수완지구 건설현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점상 송촌종합건설 대표, 이승기 송촌종합건설 회장, 장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장병두 경남기업 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김영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신만중 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 한우석 토지공사 수완사업단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부 연봉 비슷하면 연말정산 배분 유리

납세자연맹 밝혀

부부 연봉이 비슷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기보다는 나눠서 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는게 유리하다"고 18일 밝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4천500만원, 아내가 연봉 3천500만원이고 8세와 5세 자녀, 72세의 부친과 67세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400만원, 부모 경로우대공제 25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공제 273만원, 의료비 공제 365만원, 교육비공제 150만원 등 모든 공제혜택을 몰아 적용받으면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만2천여원이다.

아내의 85만6천여원과 합할 경우 이들 부부가 부담하는 총 세액은 86만9천여원이다.

그러나 아내가 전체 공제중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공제 395만원, 교육비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적용받으면 아내는 9만4천여원, 남편은 37만8천여원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총세액이 47만3천여원에 그친다.

/연합뉴스

이공계 인력 해외로 샌다

미 박사학위 취득자 70% 귀국 안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가운데 현지 잔류를 택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귀국하는 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미국과학재단의 박사 취득자 조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공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등 이공계 분야 한국인 박사 가운데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이 73.9%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인 1984년 50%보다 23.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박사의 미국 체류계획 비율은 2002년 82.2%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3년 75.4%, 2004년 73.9% 등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1984년 이래 계속 증가해왔다.

/연합뉴스

주식부자 1위 정몽구 회장

2위 삼성 이건희·3위 GS 허창수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계열사의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그룹총수 중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놓은 '주요 그룹 주요주주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자산총액기준 상위 10대 그룹총수의 보유주식 평가금액은 6조6천263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5.93% 감소했다.

이들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금액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 회장은 현대차와 글로비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각각 32.48%, 51.83% 감소하는 등 계열사의 주가하락으로 보유금액이 작년말보다 6천377억원(23.70%) 감소하며 주요 그룹총수들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변함없이 주식부자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평가금액이 1조7천42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금액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들어 8.65% 하락함에 따라 작년말보다 1천868억원(9.68%) 줄었다.

다음으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주식 평가금액이 6천725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6천6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주요그룹 주요주주 보유주식 평가금액

〈단위:억원, %〉

주요그룹	주요주주	평가금액			
		2005년말	06. 12. 13	증감액	증감률
삼성	이건희	19,294	17,426	-1,868	-9.68
현대차	정몽구	26,908	20,530	-6,377	-23.70
SK	최태원	965	1,329	363	37.64
LG	구본무	5,652	5,405	-246	-4.36
롯데	신격호	3,589	5,060	1,471	40.97
GS	허창수	4,629	6,725	2,096	45.28
한진	조양호	2,439	2,617	178	7.30
한화	김승연	6,293	6,063	-230	-3.66
두산	박용곤	301	460	159	52.88
금호	박삼구	367	647	281	76.55
합계		70,437	66,263	-4,174	-5.93

어? 보험료 더 내라고?

車 보험료 할인 내달 변경

장기 무사고자 8.9%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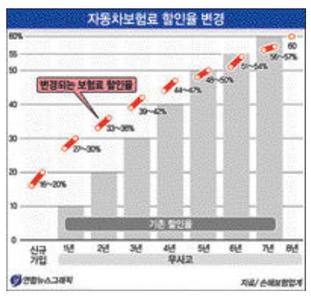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짧을수록 싸진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 14개 손해보험사가 중형차를 모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56세, 가족한정운전, 26세 이상 운전특약기준, 자기차량손해보상 제외)는 평균 29만8천984원으로 지금보다 2만4천319원(8.9%) 인상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한정운전, 30세 이상 운전특약, 새차 가액 2천만원 기준)는 평균 101만2천753원으로 10만8천161원(9.6%) 인하된다.

또 3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41세, 부부한정운전, 35세 이상 운전특약, 차량 가액 1천400만원 기준)는 평균 72만2천445원으로 5만8천929원(7.5%) 싸진다.

이들 보험료 산출의 공통조건은 출퇴근 및 가정용(ABS와 에어백 2개 장착, 오토 차량), 대인피해 무한보상, 대물피해 3천만원 보상, 자기신체 사고 3천만원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 상해보상이다.



같은 조건으로 7인승 레저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7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6만1천20원으로 2만9천395원(8.9%) 오른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82만8천779원으로 2만7천786원(3.2%), 3년 무사고 운전자는 67만9천405원으로 5만7천934원(7.9%) 내린다.

이는 회사별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있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후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1년은 10%→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44~47% ▲5년은 50%→48~50%로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은행 하남로지점 이전 개점식 광주은행은 18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2지구내에서 하남로지점 이전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LG전자, 남용 부회장 체제로

LG전자는 18일 남용〈사진〉 ㈜LG 전략사업담당 사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내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남용 부회장은 향후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남 신임 부회장은 1976년 LG전자 수출과에 입사한 이후 LG 기획조정실과 LG전자 멀티미디어 사업본부장, LG텔레콤 대표이사, ㈜LG 전략사업담당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IT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쌍수 부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후 ㈜LG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본부장에 강신익 부사장,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 사업본부장에 안승권 부사장, 한국마케팅부문장에는 박석원 부사장을 임명하고, 재경부문장(CFO)에는 정호영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연합뉴스

배아줄기세포 다시 '꿈틀'

의·과학계 연구인력 스카우트 경쟁 치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침체의 길을 걸었던 국내 배아줄기세포 분야 연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 연구인력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신경전도 치열하다.

18일 의·과학계에 따르면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한 축을 이뤘던 제주대 생명공학부 박세필 교수가 서울 건국대 동문회관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전담할 '미래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오는 20일 공식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마리아병원 부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를 떠나 제주대로 자리를 옮긴 뒤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교수팀은 앞으로 세계 처음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한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세포주를 확립하는 한편 체세포 분화 연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될 냉동 배아는 모 산부인과에서 산모 동의를 얻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쓰기로 협약을 맺었다.

박 교수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세포주를 확립한 다음 의료 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규모 줄기세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차병원 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는 지난 8~9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줄기세포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줄기세포 연구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최근 이 병원 산하 줄기세포 연구기업인 차바이오텍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인력 3명이 갑자기 경쟁 상대인 마리아병원의 줄기세포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회사정리 신청시 증시 퇴출은 부당"

고법 판결 나와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즉각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을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는 정리회사 충남방적㈜의 관리인 서모씨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진로 참이슬 '깨끗한 소주' 이미지 광고

진로는 지난 8월 참이슬 출시후 '특허받은 천연 대나무숯으로 정제한 깔끔하고 깨끗한 소주'라는 이미지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최근 MMP(MULTI-MODEL POSTING) 전략을 구사, 기존에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젊은 남자모델을 모델로 기용해 20대의 젊은층과 여성층으로 확대돼 가는 트렌드를 참신하게 반영했다.

김정응 국장은 "고정관념을 탈피한 파격적인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소주 광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풍암넷피아정보처리	디자인 강사 구함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21	062-681-7765
고려시멘트㈜	인턴 및 기술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569-1440
후지제록스호남㈜	후지제록스호남(주) 신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22	062-365-3500
로알TOTO㈜	광주영업소 영업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7	032-510-8425
기독교TV	지역 주재원 VJ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2-6333-1000
유성어패럴	치평동 세정아울렛 바닐라비 판매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384-2262
순창지업(주)	인쇄용지 배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0	062-224-7846
(주)기성	경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30	062-942-2636
케이무역	석재/대리석 시공 및 현장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2/30	062-944-0030
㈜알케이메쎄	알케이메쎄(린나이)광주지점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30	017-633-0437
파나이엔지(주)	오더관리(미국)/발주/해외영업지원/무역사무원 모집	대졸/경력1년	2200~2400	12/30	02-2058-1812
(유)특수내장	설계 인테리어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0	062-511-4936
(주)금강건설	본사 공무/소방기술자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30	062-225-1800
아름다운세상/휴플레이스	피부관리사/네일아티스트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381-687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